인공지능

정보컴퓨터공학과 201924412 구태헌

요즘 현대사회에서 쳇GPT 및 달리 등과 같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인간의 사고방식과 인지능력을 기계에 접목시키는 기술이다. 즉 인간의 뇌와 비슷하게 뉴런을 본떠서 알고리즘을 기계에 학습시켜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처하는 상황이 점점 일어 나고 있다.

야당이 ’청년 일자리 킬러’라며 박후보를 맹비난했다는 기사가 있다. 이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통번역 전공 대학원생에게 인공지능 기반 자막 제작 플랫폼을 일자리로 추천한 상황을 토대로 일어난 일이다.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페이스북에서 “방송 토론에서 인공지능으로 나무 물주는 수직공원 타령하더니 통역대학원생 앞에서는 인공지능 번역기 말씀을 하시느냐”며 “사람 일자리 없다고 아우성하는데 사람 대신 인공지능 사용하라는 건, 쌀 없으면 막걸리 먹으라는 달나라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현재까지 인간만의 주관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 하는것이 사실이다. 인간은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빠르고 인정하고 학습방법을 찾거나, 새로운 사실을 스스로 발견하는 행위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최근 인간 기자와 챗GPT가 기사 작성 대결을 한적이 있다. 최종적으로 챗GPT가 기자를 대체 하지 못했다. 기술의 한계를 체감하면 사람들은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인공지능은 학습을 통해 만들어지는 산출물이다. 하지만 학습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엉뚱한 결과를 도출한다. 즉, 입력에 대한 결과가 맞는지 틀린지 판단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준 알파고와 이세돌 대결중 이세돌의 78수는 신의 한 수가 되었지만 알파고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인간은 악수인지 묘수인지 알 수 있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알파고와 같이 최근의 인공지능은 빅데이터과 딥러닝을 이용해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경기 룰을 변경 하는등의 전혀 새로운 변수에 대해 대응할 수 없고, 학습되지 않았거나 추론할 수 없는 경우엔 예측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7천 3백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단순 사무직이나 운송 관련 직업들의 쇠퇴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없어지는 일자리만큼 인공지능 개발, 프로그래밍, 테스트지원 및 유지보수 부문의 일자리가 2300만 개 정도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떠한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기존의 지식을 뒤엎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간이 인공지능이라는 훌륭한 도구를 이용해 특정 사실을 빠르게 분석하고, 추론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등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 가능 할 것이다.